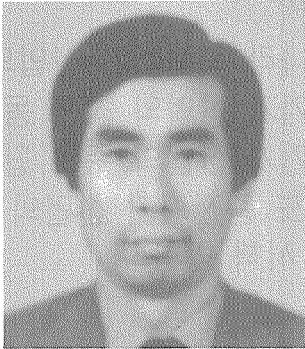


■ 政府施策 ■

중전기기산업의 발전방향 및 '91년도 추진시책

- I. 서언
- II. 우리나라 중전기기 산업의 현황
- III. 중전기기 산업의 최근 동향
- IV. 중전기기 산업의 주요 당면과제
- V. '91년도 중전기기 산업의 전망 및
추진 시책 방향

중전기기산업의 발전방향 및 '91년도 추진시책



상공부 전기공업과장
주 문 영

I. 서언

우리나라 중전기기 산업은 '60년대 이후, 장기 원개발사업과 중화학공업의 육성시책 등의 경제개발 계획과 더불어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현재 세계 10위권의 중전기기 산업국으로 부상하였고, 향후 2000년대에는 세계 6위권의 진입을 목표로 착실한 성장을 거듭중에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UR협상,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추진, 세계 주요 중전기기 업체들의 세계화 전략 (Globalization) 등의 국제간 협력관계의 정립 문제 등이 우리에게서 두터운 벽이 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산업 조직간 불균형 시정, 경직된 산업구조에의 탈피 등 고도의 성장과정에서 굳어진 구조적인 문제점들과 최근 Gulf 전 사태로 인한 중전기기 수출시장의 격감 및 국내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전혀 예견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가 스스로 감내치 않고는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으로는 전자·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전력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까지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에 따라 중전기기의 수요패턴 변화, 이종산업간 공유기술의 발생등으로 기술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새로운 기술개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중전기 산업의 체질분석과 당면과제를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상을 정립해 보고, 향후 2000년대 중전기 산업의 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91년도 추진시책을 연구해 보기로 한다.

II. 우리나라 중전기 산업의 현황

1. 수급 동향

우리나라 중전기 산업의 수급은 '90년도에 37억불을 생산하여 이중 84%인 31.2억불을 내수에 공급하고, 나머지 5.8억불을 수출하였다.

기 및 발전기 등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막대한 규모로 수입되고 있는 중전기기의 수입대체를 위해 국산개발 노력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개발된 품목도 경쟁력 향상을 통한 수출증대 또한, 우리 중전기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2. 산업구조 및 체질 분석

중전기 산업은 한전, 통신공사의 전원개발과 전화공사의 지속적인 수요증가로 '89년도 생산 22,940억원 중 42%인 9,610억원을 한전, 통신공사 등 관수시장에, 42%인 9,640억원을 민수시장에 공급하여 내수 의존 비율이 84%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지나친 내수·관납위주의 성장은 경직된 산업구조를 형성하여 격렬한 국제 경쟁시장에 대한 적응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대외지향적인 운영에도 적극적이지 못하여 해외시장 및 기술정보에 상대적

〈우리나라 중전기산업의 수급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83	'85	'87	'89	'90	년평균 증가율(%)	
						83-89	89-90
공							
생	1,326	1,458	2,152	3,418	3,720	17.1	8.0
급							
수	424	522	817	1,167	1,200	18.9	2.8
입							
계	1,740	1,980	2,969	4,586	4,920	17.5	6.6
수							
내	1,495	1,759	2,060	4,061	2,340	19.4	6.9
요							
수	245	221	309	525	580	14.4	4.8
출							
수출	18.5	15.2	14.5	15.4	14.9	-	-
비율							
수출의존율	28.4	29.7	39.7	28.7	27.6	-	-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전기조합 생산통계

주 : 수출비율=수출/생산, 수입의존율 : 수입/내수

그러나, 아직도 기술개발 능력의 취약, 품질 및 가격경쟁력의 열위와 마케팅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일본, 미국, 서독 등에서 약 12억불을 수입하고 있어, 연간 6.2억불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수입되고 있는 중전기기는 주로 고도기술을 요하는 제어, 감시장치와 전력변환장치가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동화 설비용 소형 전동기, 변압

으로 어두운 편이다.

그러나, 최근 산업의 체질개선과 기술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기술개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은 늦으나마 환영할 일이다. 기술개발은 크게 기술도입과 자체 기술개발로 구분되는데, '90년도 실적 중 기술도입에 의한 국산화는 삼성항공의 인버터 등 25건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졌고(누계 356건) 자체기

〈우리나라 중전기 산업의 공급 구조('89)〉

(단위 : 억원)

구 분	생 산	국 내 공 급			수 출
		관 수	민 수	계	
전력기기	11,200	5,260	3,340	8,600	2,600
전 선	11,740	4,350	6,300	10,650	1,100
계	22,940	9,610	9,640	19,250	3,700

자료 : 한전, 통신공사

주 : 발전설비는 제외

술 개발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과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기계류, 부품 국산개발사업 및 기타 기업 자체 개발사업이 있는 바,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으로는 배전자동화 시스템 등 5건('87~'90년 누계 24건) 기계류, 부품 국산개발대상품목은 SF6 가스 개폐기 등 23건('88~'90년 누계 143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을 위한 주변사업도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어 '90년도에 진영엔지니어링 등 4개 업체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여 총 28개 업체로 증가하였고,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전력전자연구조합도 결성한 바 있다.

이와같은 기술개발체제를 민관 합동의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0년 5월~10월까지 6개월간 전기공업진흥회가 주관하고, 전기연구소, 관련업체 및 학계에서 공동참여하여 오는 '95년까지 108개 과제에 대해 1,022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전기 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중 첨단기술이면서 대규모의 개발자금을 요하는 배전자동화시스템 등 대형 첨단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산·연·관의 공동참여 뿐만 아니라 수요기관인 한전이 동반자적 상호 협력관계 증진 차원에서 참여하게 된 것은 중전기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동시에 중전기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공장 품질 관리등급제 지정을 위한 품질관리운동이 확산되어 이미 14개업체가 등급공장으로 지정되었고, 오는 '95년도까지 전체

중전기기업체의 33%에 해당하는 244개 업체를 등급공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술진단과 기술지도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Ⅲ. 중전기 산업의 최근 동향

1. 국내의 중전기 산업의 환경 변화

우선, 세계 중전기 산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산업환경변화를 살펴보면, '79년 2차 석유파동이후,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증가가 현격히 둔화되면서 세계시장의 수요 정체 및 기업별 유희시설의 과다 발생 등으로 중전기 산업의 구조 개편이 급격히 추진되고 있다.

즉, 88. 1월 ABB 그룹은 ASEA사와 BBC사의 합병으로 세계적인 중전기기업계로 부상하였고, '89. 1월 미국 웨스팅 하우스사의 북미지역 송배전 사업이 스위스 ABB사로 미국 제네랄 일렉트릭사의 송·배전 변압기 사업이 독일의 지이멘스사로 넘어가는 등 세계 기업간 흡수·합병현상이 급속히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중소형 중전기에 대한 개도국으로의 산업이전 현상도 주목되고 있다.

더구나, EC는 역내 시장 단일화에 대비하여 '92년부터 전기기기의 사용전압을 230V로 규격화 하는 등 EC역내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은 인건비 상승과 엔화강세에 대응키 위해 설비자동화를 적극 추진하여 소위 주물, 단조 등 사양산업으로 일컬어

지던 산업도 자동화 추진으로 경쟁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매진하고 있다.

최근, 북방정책의 추진과 동구권의 개방화에 따라 소련, 체코 등 동구권 국가들도 우리의 주요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증전기기 산업에 대한 역사가 깊고, 국가기간 산업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우수한 반면, 원가개념의 희박으로 싼 가격의 제품을 중동 등 국제시장에 내놓는 등 국제경쟁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국내 증전기기 산업의 주변 여건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80년대초 정치·사회적 민주화 및 자유화 물결에 편승하여 각계 각층의 기대 욕구가 일시에 분출하면서 확대되고 있는 노사분규, 임금상승 등의 산업평화 문제도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다.

또한,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고, 기본관세율도 점차 인하 추세에 있어 국내시장이 점차 세계 시장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 Trade)18조 3항의 졸업으로 소위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긴급수입제한 등의 수단으

태로든 이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증전기기 산업의 세계속에서의 위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정확히 평가한 후, 부족한 기술과 부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국내외 증전기기 시장의 성장 전망

세계 증전기기 산업의 성장은 산업사회의 Infrastructure적 특성과 그 용도상 국가경제 및 전력소비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본 통산성은 연평균 약 4% 정도에, 미국 Think Tank는 2.0~2.8%에 수준에 머물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측은 단순히 H/W 분야의 수치로만 본 것이고, 엔지니어링 등 S/W 분야 까지 포함하면, 향후 2000년대까지 세계 증전기기 시장은 연평균 약 5.7% 수준으로 성장하여 현재 규모의 1.8배인 4,500억불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전기기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주목되고 있는데, 과거 증전기기의 구매형태는 변압기, 차단기

〈세계 증전기기 산업의 시장규모 전망〉

(단위 : 억불, %)

구 분	'89	'95	'89-'95	2000	연평균 증가율	
					'89-2000	'95-2000
시장규모	2,450	3,450	5.9	4,500	5.7	5.5

자료 : 1. UN 통계연감 전력수급 실적

2. 일본 통산성 발간 '21세기 증전산업을 생각하는 회의'

주 : 발전소 건설기자재 포함

로 국내산업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어졌고, 다만 사후적으로 외국상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정무역 혹은 불공정무역을 통하여 국내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한하여 '산업피해 구제제도'나 '반덤핑 제소'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GATT 정부조달협정가입 추진에 따라,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구매시장 개방압력을 GATT로부터 강하게 받고 있어 멀지 않아 어떤 형

등 단품위주가 대부분이었으나,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이중산업간 복합기술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일괄 수주형태에서 시스템 구매 위주로 변화되고 있으며, 또한 전력기기의 H/W 보다는 발전소 건설 및 운용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등의 S/W 분야가 향후 증전기기 시장의 주요 신장요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미국 Think Tank에 의하면 '91~'95년까지 세계 전력수요의 연평균 신장율은 2.0~2.8%에 불과한 반면, 전력관련 CAD/CAM 신장율은

25~30%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세계 중전기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전기 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전력 예비율이 충분하여 발전소 건설을 미루어 왔으나, 최근 급격한 전력 수요증가로 그 계획이 앞당겨지고 있고, 향후 2001년도까지는 현재 발전 능력의 약 2배에 해당하는 19,900천KW의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어, 이로 인한 신규 변전소 및 송·배전 설비 증강, 전력설비 자동화시스템, 765KV급 차세대 초고압 중전기 등 대규모의 건설공사가 예상되고, 지하철 5, 6, 7, 8호기 전동차 확충 사업과 부산, 대구 등 지방대도시의 지하철건설 및 경부·호남고속전철 건설사업에 들어가는 핵심 전력전자기기의 구매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공장 설비 자동화용 기기의 보급확대로 전력제어 시스템도 기대할 만한 분야로 등장하고 있다.

화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무역 및 산업정책상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먼저,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중전기기의 무역적자는 '83년 이후, 연평균 23.7%로 증가하여 '90년말 6.2억불 수준으로 규모면에서는 점차 악화되고 있으나, 수입의존율(수입/내수)은 동 기간에 28.4%에서 27.6%로 다소 개선되고 있어, 중전기 국산개발 추진이 수입 의존을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다.

중전기기의 수입 요인을 보면, 1)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여 수입되고 있는 완제품 및 부품 2) 국내 생산은 가능하나 품질성능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수입되는 것 3) 국내업체 납기지연 혹은 마케팅 능력부족으로 국산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비슷함에도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사유를 분석해 보면, 첨

〈우리나라 중전기 산업의 장기 수급 전망〉

(단위 : 백만불, %)

구 분		'89	'95	'89-'95	2000	'89-2000
수	내 수	4,009	6,900	9.5	11,000	9.8
요	수 출	525	1,600	20.4	4,000	20.1
계		4,534	8,500	11.0	15,000	12.0
공	생 산	3,419	7,000	12.7	13,000	13.2
급	수 입	1,168	1,500	4.3	2,000	5.9

자료 : 관체청 수·출입통계, 전기조합 생산통계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선진국의 품목별, 지역별 블록화 현상의 심화, 유희생산 설비의 대 개도국 이전 추세 등 세계 중전기 시장의 구조 변화와 국내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비추어, 향후 예상되는 대규모 수요 물량을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능력 확보는 물론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배양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IV. 중전기 산업의 주요 당면과제

우리나라 중전기 산업은 그 동안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선진산업

단기술로서 근본적으로 국내기술력이 부족하여 개발할 수 없거나, 생산규모의 미달, 기술 및 산업정보의 부족으로 국산개발 착수가 늦은 경우, 기타 설계도면이나 용역만 수입하면 국산가능하나, 이를 구하지 못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생산성의 저위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중전기 산업의 1인당 생산성(부가가치 기준)을 보면 일본의 약1/3 수준인 12백만원('88)으로서, 일본보다 저렴한 임금을 받더라도 제조원가 구성비중 인건비의 비율은 16%로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생산성의 저위 원인은 먼저 설비의 자동화, 정보화의 부진을 들 수 있고, 숙련된 기능공의 부족으로 생산, 가공시간이 오래 걸리고 최근, 검사불량을 이 일본의 10배 수준인 2.1%에 이르고 있어 가공불

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내수, 관납위주의 산업체질로서 대외 적응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전기 수출은 '89년 5.2억불, '90년 5.8억불 규모로서 생산중 수출 비율은 15% 정도이며, 세계수출시장 530억불의 1%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위험부담, 가격경쟁력의 열위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부족하였고, 특히 내수시장의 50%를 차지하는 관납시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신제품 개발 공급보다는 구매기관이 제시하는 규격에 따라 국산화 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관납시장의 비율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넷째, 산업의 부문간 불균형을 들 수 있다.

대단위 투자가 필요한 초고압 부문에서는 아직도 과잉설비가 상존하고 있으나, 첨단전력전자부문은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의 부족으로 막대한 규모의 전력전자기기가 수입되고 있는데, 특히 전력제어장치는 연간 수입규모가 1.6억불로 국내 수요의 3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사이에 품목별 기술수준별 분업화 내지는 전문화체제의 미확립으로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V. '91년도 중전기산업의 전망 및 추진 시책 방향

1. '91년도 중전기산업의 전망

'91년은 국내외의 정치·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90년보다 나아지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페르시아만 사태에 따라 세계 유가의 불확실성이 어느때보다도 커지고 있고 금년도 국내 물가 상승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상승 요구도 거세어 질 것으로 보여 어느해 보다도 많은 제약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기술개발 노력, 생산성향상 및 품질관리향상 사업의 결과로 우리 중전기산업의 대외 경쟁력이 많이 향상되고 있으며, 한전 등 관수부문의 수요가 계속 확대될 전망이며, 중전기기는 수출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한다면, 수출시장은 빠르게 성장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즉, '91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생산은 13%가 늘어난 44억불, 수출은 12%가 증가한 6.5억불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진다.

특히, 전력전자 등 첨단 중전기기의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어 중전기기의 산업구조도 점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기업의 내실화와 함께 새롭고 창의성이 있는 참신한 중소기업의 신규투자가 많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2. '91년도 추진시책 방향

가. 중전기기술개발 5개년 계획의 실천체제 확립

우리나라 중전기산업이 겪고 있는 애로를 타개하고,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산업화를 모색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년도에는 무엇보다도 기술력의 배양과 신제품 기술개발에 우선 역점을 두고자 한다.

우선, 중전기기술개발 5개년 계획 중 1차년도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 연구소, 학계, 수요기관 및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개발 추진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기공업진흥회내에 “국산화대책 위원회”와 “품목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동 위원회에서는 국산개발대상 고시품목의 발굴, 단체규격 제정·보급 및 개발된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 등 업무수요에 따라 신속적으로 운용하고, ‘품목별 위원회’에서 '91공업기술수요조사를 수행토록 하여 여기에서 발굴된 기술개발과제들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및 기계류, 부품 국산화 대상품목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개발을 위하여는 개발자금(Money) 연구인력(Man) 및 시장(Market)의 삼위일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 기술개발 대상품목을 한전 등 정부투자기관의 중장기 구매계획과 상호 연계하는 동시에 정부출연자금이나,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등 저리융자금의 기술개발자금과 서울대 기초전력연구소, 전기연구소, 연구조합 등의 연구인력지원 및 세제, 시험제도 등의 각종 지원시책들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 세계산업 및 무역질서 개편흐름에 능동적 대처

세계 증전기기의 산업구조 개편동향에 신속히 대응하고, 세계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세계 증전기기 산업의 시장구조 및 동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전기공업진흥회로 하여금 '91년도 상반기에 미국, EC, 일본 등 선진국의 산업구조 개편 동향과 동남아 등 개도국의 입찰시장에 관한 시정정보등을 조사·분석케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건설업체와의 협력수출, 후발개도국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통한 증전기기 수출과의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UL, IEC 등 해외 유명규격의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규격과 해외규격과의 상호 인증할 수 있는 체제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에 대비하여 품목별 경쟁력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후, 국내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개방대상 기관 및 품목을 단계적으로 개방토록 하고,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산업피해 구제제도나 반덤핑 제도를 활용하여 국내산업을 적극 보호토록 할 것이다.

다. 생산성 향상 및 품질의 선진 수준화 제고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오는 '95년까지 10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동화·정보화의 시범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매년 공업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자동화와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기술부문에 대하여는 기술개발자금 및 설비자금을 지원하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증전기기 품질향상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공장 품질관리 등급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기 위하여 등급공장 지정업체에 대하여는 한전의 납품검사 면제,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 기준에 반영하는 등 각종 Incentive 부여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이다.

라. 산업조직의 합리화 및 자유경쟁체제 도입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보완적인 경쟁체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앞으로 대기업은 엔지니어링 등 소프트웨어분야와 첨단 전력전자기기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일괄 수주의 판매형태를 촉진할 수 있도록 증전기기

와 관련있는 산업 및 환경보존 설비분야로 업종을 다각화하여 선진국 형태의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며, 중소기업은 생산 주종품목별로 전문생산체제를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부문은 과감하게 중소기업에 이양토록 하여, 대기업과의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토록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육성시책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과보호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 품목이나,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점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에서 신규로 참여하는 사업이나, 대기업으로부터 이양받은 품목 등에 대하여는 자금이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시장을 보호하여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마.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개선

최근, 페르시아만 사태로 인하여 에너지 절약형 증전기기의 개발이 관심분야로 등장하고 있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저손실 경제성 물품의 우선 구매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증전기기의 경제성있는 물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현재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 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종합납찰제의 실시 범위를 확대하여 아몰 퍼스변압기, 교류전동기 속도제어장치 등 에너지절약형 증전기기가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전 입찰시에 부과되는 기술도입 의무화 조건을 시정하여 국내기술에 의해 개발된 품목도 한전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사업법의 사용전 검사제도 중 전기안전공사가 시행중인 사용전 검사방법의 불형평을 시정하여 국산개발품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증전기기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토록 할 것이다.

즉, 국산품과 수입품, 기술도입개발품과 기업자체 개발품간의 사용전 검사방법의 불형평을 시정하기 위하여 우수 국산 증전기기와 기술도입 개발품에 대한 검사를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토록 할 계획이다.